

연구대학과 교육

윤 희 원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우리는 흔히 '대학'을 '대학교'라고 한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대학교수를 '대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말을 조금 바꾸면, 학생들은 대학교에 배우러 다니고, 교수들은 대학교에 가르치러 다닌다고 한다. 더러 공부하러 다닌다는 다소 자주적인(?) 답도 하기는 하지만 대학원생들로부터 아니, 교수들로부터도 연구하러 다닌다는 답을 듣는 것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공부 혹은 학문을 선현의 가르침을 배우는(혹은 깨닫는) 것으로 파악했던 우리 선조들의 관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탐구'를 학습의 한 과정으로 여기는 지금의 학교 분위기와도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우리에게 '대학교'는 '대학+교'라기 보다는 '대+학교'이며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다음에 다니는 '학교'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대학은 근대적 의미의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적 수요와 대학 안팎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정당하고 의미가 있었으며 교육을 통한 고급인력의 배출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대가 우리 나라의 대학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대학은 교육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다.

대학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학이 이제까지 지식의 전수만을 목표로 해 왔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류의 지적 자산이 대학을 통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기대하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이는 모든 대학에 대한 기대는 아니며, 또한 대학의 기본적인 책무가 교육에서 연구로 비편 것도 아닌 일종의 기능 분화와 비슷하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대의 변화는 대학 스스로가 자임한 것이기도 하다.

대학의 사명을 '교육'에서 '교육', '연구', '사회봉사'로 요약하되, 자기 대학의 책무를 지적 자산의 '전수'에서 '창출'로 자임하는 대학들은 스스로를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이라 칭하며, 교육기관(teaching institution)과 일종의 분리 선언을 한다. 그리고 이른바 개혁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대학의 물리적인 구조를 바꾸고 학내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과 배치를 재조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하면서 연구대학들은 그네들끼리 연구대학연합을 만들기도 하였다.

연구대학을 무언가 조금은 유보된 듯한 명칭인 연구중심대학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이하 '연구대학'으로 함), 흔히 대학원대학 혹은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명명과 함께 거론되며 가끔은 혼용되기까지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사과정을 '교육'의 과정으로 보고 석사과정 이상이 되어야 '연구'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학사과정 학생들은 교육의 대상이요,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들은 연구에 필요한 혹은 연구가 가능한 인력으로 보는 것이다.

연구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여기다 보니 연구대학의 논의는 교육보다는 연구를 중심으로, 학사과정보다는 대학원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를 위한 대학의 구조와 조직, 연구를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 연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연구를 위한 인력 수급과 배치, 연구인력을 위한 후생 복지 문제 등이 매우 구체적인 수칙과 더불어 이야기될 때 교육은, 특히 학사과정의 교육은 논의의 핵심에 끼지 못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연구대학에는 학사과정이 없는 - 심하게는, 없어야 하는 -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제목에서 보드시피 연구대학과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본고는 연구대학도 '학교'라는 점에 충실해야 한다거나, 연구대학에 학사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구대학도 '학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거나 특정 연구대학에 학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연구대학이 연구대학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학원에 진학하기 이전에 연구를 위한 준비를 시킬만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왜냐하면 연구도 물리적 기반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며,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을 포함한 각종 연구 단위에서 연구에 필요한 사

람, 즉 연구인력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과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구보조인력은 다시 조교, 대학원생 등 연구 수행을 직접 보조하는 인력과 기사 등 연구 시설운동을 위한 인력, 행정직원이나 회계, 비서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담당하는 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두 번째 부류에 속했던 인력 가운데 연구 수행을 직접 보조하는 인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 실제로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희망컨대 - 점차로 첫 번째 부류로 옮겨가게 되고, 나머지 인력은 직업의 개념으로 연구를 보조하게 된다.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타 분야의 전문인력, 예컨대 교사나 의사, 건축가나 예술가 등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는 다른, 연구인력 양성 교육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학사과정은 그 자체로서 완성교육을 지향하며 연구라는 맥락과 굳이 연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 왔으나, 이제부터는 단순한 지식의 전수에서 나아가 연구자로서의 바탕을 갖추어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연구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교육', 그리고 '연구를 통한 교육'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연구에 대한 교육'은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서 시작한다. 흔히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고, 대학원 진학을 앞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연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 영역의 지식을 아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연구란 무엇이며, 무엇이 연구의 대상 혹은 주된 관심사이며, 이제까지의 연구는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학자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 길을 선택하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다. 연구란 특정 학문 분야의 지식이 많

다거나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교육’은 실제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의 과정과 절차를 지도하고, 연구를 위한 기본 지식 및 기능을 숙달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과제로 다듬는 안목과 기술, 기초적인 문헌 및 자료를 다루는 일, 조사의 기법이나 결과 처리 기술, 기초적인 실험의 기술 혹은 실험용 기자재 운용, 논문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작문 능력 및 논문작성법 등은 대학원 진학 이전에 체득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한 교육’이란, 여기서는 교수가 연구를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정도든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연구라는 상황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구와 관련된 교육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구 보조인력의 문제이다. 연구보조인력은 자신이 직접 연구하지는 않으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문헌 자료, 시청각 자료, 기록물, 통계 등)를 발굴하고 제작하며 정리·보관하는 전통적 의미의 보조 활동뿐 아니라 연구의 각 단계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특수언어 혹은 통계처리 관련 전문인력, 전산전문인력, 각종 기기 및 기자재 전문인력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를 위해 접촉해야 하는 인사나 기관과의 연계, 연구비의 관리와 집행 등의 행·재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연구자가 연구 이외의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 준다는 의미이다.

연구보조인력의 역할이란, 직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연구인력(교수-학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서-대학원생이나 post doc.시절에-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보조인력은 특정한 학문 영역의 연구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와 연구 수행 과정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띠도록 교육되고 양성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연구와 직접 관련이 되며 본격적인 연구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대학 나이가 사회적으로 연구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학생 각자에게는 진로 선택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연구대학의 본격적인 연구주체인 대학원은 이러한 교육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신입생 즉, 연구인력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학사과정으로 완성되는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갈 학생들과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이 평가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 연구할 인력을 선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연구대학과 관련하여 연구인력과 연구보조인력의 교육에 대해서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서나마 살펴 보았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연구대학의 학사과정은, 아니, 연구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속해있는 대학의 학사과정은 위의 같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연구가 수행되는 연구대학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모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

윤희원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7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서울대 연구부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어과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심의위원, 한국 교과교육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각급학교 국어과 교과서와 「국어과교수학습방법탐구」 등과 같은 국어(과)교육 및 교과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저서가 있으며, 논문 “국어교육학 국제비교연구”, 역서 「문학의 교육」 등 다수를 발표하였다.